군산항·새만금신항 Win-Win 발전

군산항 유관기관·단체·기업 간담회 개최

군산시는 지난 7일 은파펠리스호텔에서 군산항 유관기관·단체·기업 60여명이 참여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그동안 군산항의 고질적인 문제인 계획수심 미확보, 수출입물동량의 불균형, 군산항과 새만금신항의 동반성장 전략 수립 등 항만업계의 경영난 해소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시는 민간과 단체 등과 가용 능력을 결집해 현재 처한 군산항의 위기를 극복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위기 극복을 위해 전북도내 기업 중 광양항으로 유출되는 물동량 유치를 위해 타킷형 포트세일을 연중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도내 기업중 타항만을 이용하는 기업을 1:1 방문해 포트세일을 추진 중이며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타킷기업 및 품목을 선정, 연중 포트세일과 함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신규화물 유치와 군산항 이용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 군산항의 관련기업·단체 등의 애로사항 및 군산항 활성화 전략 수립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매월 1회 운영해 시가 소통 창구 역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연간 실무협의회 및 포트세일 활동의 성과를 분석해 유관기관·단체·기업 등이 한자리에 모여 성과보고회를 개최하고 군산항 생존 전략에 대한 관심도 제고와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군산항의 전략화물의 항만 경쟁력을 강화하고 향후 개장 예정인 새만금신항과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 군산항이 지역경제 발전의 동력으로 삼아 갈 계획이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간담회를 통해 나온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하고 군산항을 이용하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앞으로도 군산항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군산항이 지속성장이 가능한 항만이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산=김판곤 기자

황등시립작은도서관 '최우수'

도내 작은도서관 379개소 운영평가서 선정 · 공립 부문 낭산 장려상

익산시 작은도서관이 일생 생활에서 만나는 평생학습 마을문화 공동체 역할로 빛을 발했다.

익산 황등시립작은도서관은 전라북도에서 주관하는 2022년 작은도서관 운영평가에서 '최우수 시립작은도서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 우수시설을 발굴·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평가에는 도내 작은도서관 379개소(공립 154, 사립 225)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작은도서관 운영평가는 독서문화프로그램·동아리활동 등 운영사례, 부족한 재원 등의 문제해결 극복을 위한 노력사례, 지역사회 연계·협력 및 마을공동체 운영사례 등에 정성적 평가로 이뤄졌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황등시립작은도서관은 '2022년 우수 시립작은도서관 육성지원 대상 도서관'으로 선정돼 다문화가정 및 특수아동층과 소통을 주제로 한 '다정다감(多情多感) 독서문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운영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장려상을 수상한 낭산작은도서관은 문화소외지역인 읍·면지역 주민들의 문화향유를 위해 '지역 공동체와 함께하는 작은도서관 낭산 문화로드맵' 사업을 지역주민과 공모사업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성과를 보였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작은도서관은 주민들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평생학습 마을문화공동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작은도서관 조성과 운영지원을 통해 책 읽는 문화도시 토대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익산시에는 52개 작은도서관(공립 19개소, 사립 33개소)이 등록·운영 중이다. 우리집 주변 작은도서관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익산시립도서관 작은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농업미생물배양장 미생물 공급 확대

고품질 농업미생물 확대공급… 친환경농업 강화

군산시농업기술센터는 8일 현대화설비로 완공된 농업미생물배양장에서 생산한 고품질의 농업미생물을 농가들에게 무상으로 공급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농업미생물배양장은 현재 고초균, 유산균, 효모균, 광합성균, 바실러스 계통의 미생물을 생산·공급하고 있다. 축산농가에도 가축사료 보조용, 악취저감 용도와 시설원예 농가에는 작물의 생육개선과 토양환경 개선에 활용하고 있다.

또한, 관내 농업인에게 비대면공급이 가능한 자동분주 시스템을 활용해 미생물 활용 농가의 데이터베이스를 자동적으로 취합하고 각 미생물별, 또는 활용범위별로 비교·분석해 생산 및 공급을 농업인의 수요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전년과 비교해 달라진 점은 지난 2021년까지는 관내 12곳의 농민상담소에서도 유용 농업미생물을 공급했지만 올해부터는 복합균에서 단일균으로 전환해 보다 품질이 좋고 완전한 관리를 위해 농업미생물배양장에서만 공급하고 있다. 공급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평일 10시~17시(점심시간 제외)사이 용기를 지참해 농업기술센터에 방문하면 수령이 가능하다.

내년에는 미생물의 확대 보급을 위해 병해충 방제 유용미생물을 도입해 농가 실증시험을 진행할 계획이다.

신동우 기술보급과장은 "탄소저감 등 환경보전에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품질 좋은 미생물을 농업인들에게 확대 공급해 친환경 농업 환경개선과 농업경영비 절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임의원씨, 익산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수기 '최우수'

익산시가 지역 돌봄체계를 강화하고 양육 친화적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한 '돌봄 품앗이 공간, 익산 공동육아나눔터'의 우수성을 전국적으로 인정받았다.

익산시 공동육아나눔터 1호점이 8일 여성가족부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개최한 '2022년 가족지원서비스 우수수기 및 우수프로그램 공모전'에서 최우수상(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상)을 수상했다.

이번 공모전은 이용수기를 위해 가족센터 우수성을 알리고자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113건을 모집해 평가했으며, 8일 전국가족센터장 소통의 날 행사에서 시례발표회와 시상식이 열렸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자 임의원씨의 수기 '함께 나누면 사랑이라는 덤이 와요'는 육아 품앗이 활동에 참여한 엄마와 아이들이 나눔터 텃밭에서 가꾼 수확물로 비빔밥을 만들어 마을 어르신들께 나눔을 실천한 경험을 담았다.

공동 육아를 통해 돌봄의 가치를 확장시키고 지역 어르신과 세대간 유대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한 점이 높이 평가받았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양성 시민기록가, '두동마을' 기록문화 콘텐츠 발표

익산시가 민간 기록 문화 확산을 위해 진행한 '시민기록가양성 및 기록콘텐츠 제작 전시'에 대한 결과발표회가 8일 개최됐다.

이번 전시 발표회는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시민들이 직접 기록가가 되어 4주간의 아카이빙(기록활동) 이론교육을 마치고 실제 마을 기록 수행과정의 기록콘텐츠 결과물을 소개하는 자리다.

실제 마을 기록 과정에는 교육에 참여한 일반시민 뿐만 아니라 2020년부터 다양한 민간기록 교육을 통해 양성된 시민 기록가, 원광대학교 학생들, 숙련기록활동가 등 20여명과 마을주민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약 2달 동안 성당면 두동마을을 찾아 역사, 문화, 종교, 일상에 대한 글, 그림, 사진, 영상, 연극, 음악 분야로 아카이빙해 기록콘텐츠를 만들었다.

특히 생생한 마을 이야기를 기록하기 위해 마을 주민들과 함께 숙식을 해결하며 개인의 이야기 뿐만 아니라 익산의 역사가 깃든 이야기 등 다채로운 마을 이야기가 10점의 글, 26점의 그림, 10점의 사진, 연극과 노래를 기록했다.

또한 중요 민간기록 소실 방지 및 관리를 위해 마을주민이 소장한 기록물 약 60여 건의 소재 정보를 목록화했다.

시는 이러한 마을기록화 활동 과정을 다큐멘터리 영상으로 제작해 기록문화 자료 및 홍보에 활용할 방침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김진규 익산시의원, 도시가스 유지보수 근거 마련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한 주택에 도시가스 공급 시설을 유지보수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마련됐다.

익산시의회는 김진규 의원(기획행정위원회)이 발의한 '익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7일 제248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충영) 심사를 통과 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항 중 기존 상·하수도시설만 보수 및 준설을 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도시가스공급 시설의 유지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지원 대상자는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한 주택에 도시가스공급 시설을 유지보수 할 수 있도록 지원받게 된다.

김진규 의원은 "그동안 기존 주택 조례에서 상·하수도시설만 보수 및 준설을 하도록 하는 지원 사항을 도시가스공급 시설의 유지보수도 함께 할 수 있도록 기존 조례에 반영해 구체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지역 소식통

익산 모범음식점, 지정증 수여 · 영업자 간담회

익산시는 위생상태와 서비스 수준 등이 우수한 모범음식점들을 '익산 방문의해'를 대표 하는 관광지원으로 육성한다.

시는 모범음식점 51개소를 지정하고 7, 8일 이틀에 걸쳐 한국외식업중앙회 익산지부에서 신규, 재지정 된 영업자를 대상으로 지정증 수여 및 영업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모범음식점 신규 지정은 모집공고를 통해 신청한 음식점 중 위생상태, 맛, 친절 서비스 등 22개 항목에 대한 현장 평가와 음식문화개선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올해 신규 지정된 모범음식점은 △서동궁 △아구세상 익산본점 △짬뽕지존 익산점 3개소이며, 재심사를 통해 재지정된 업소는 48개소이다.

/익산=이재춘기자

군산시, GMO 소비자 안전교육 · 캠페인

군산시는 8일 소비자교육중앙회 군산지회의 주관으로 GMO(유전자변형농산물) 소비자안전교육과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소비자, 농업인을 비롯한 군산시민 500여명에게 GMO(유전자변형농산물)의 다양한 변화를 알려 생활 문화 개선을 위해 실시됐다.

교육을 통해 GMO식품의 정의와 GMO식품이 인체·환경에 끼치는 영향, 소비자가 GMO식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리는 거리 캠페인 등 군산시민이 건강한 식생활 문화에 다가갈 수 있도록 앞장섰다.

시는 이미 지난해부터 지역 시민들을 대상으로 GMO관련 유통·소비 안전교육을 실시해 바른 먹거리에 대해서 알리고, GMO에 대한 소비자 인식제고로 호응을 얻은 바 있다.

김선주 먹거리정책과장은 "한국은 매년 GMO농산물 수입량이 증가하는 추세로 GMO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이 중요하다"면서 "교육을 통해 우리 농산물 소비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곤 기자